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I

1. 시험 시간은 10:00 ~ 11:40 (100분)입니다.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3. 1번 문항은 답안지 앞면의 [문제 1]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2번 문항은 답안지 뒷면의 [문제 2]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 답안은 어문 규범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라 작성하되, 분량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5. 답안지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6. 답안지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답안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7.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흑색 필기구(연필, 샤프, 검정색 볼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함)
8. 답안 작성 및 수정 시에는 개인이 지참한 흑색 필기구, 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인문사회계 I

※ [문제 1]: [가]의 '구성원의 행위'와 [나]의 '구조의 제약'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의 '사회학적 상상력'과 [나]의 '코드' 개념을 적용해서 [라]의 '토포러 현상'을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일상, 그가 속한 집단, 더 큰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밀즈(C. Mills)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단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주제를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 **구성원의 행위**를 사회 구조와 연관 지어 확장해 나가는 것도 포함된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 첫째, 누군가가 "커피 한 잔 하자."라고 했을 때, 커피보다는 대화하자는 의미에 초점을 두면 커피가 대화를 위한 의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커피가 갖는 그러한 일상의 상징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커피에 들어 있는 중독성 물질인 카페인에 초점을 두면, 사회가 왜 마리아나는 규제하면서 커피는 용인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와 소비하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지구적 차원의 거래와 빈부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세계화, 국제 무역 확대, 인권과 환경 오염에 관한 논쟁을 고려하여 개인들이 어떤 커피를 선택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행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커피를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 현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 때문이며, 이러한 성찰적 태도로 사회학적 상상력은 더욱 증가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는 변화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유의 규제자가 바로 코드이다. 코드를 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생활의 조립 환경이자 그 '설계 구조'이다. 19세기 중반에 자유를 위협하였던 것이 사회 규범이었고, 20세기 초반에는 국가 권력이, 그리고 20세기 중반의 대부분 기간에는 시장이 자유를 위협했다고 한다면,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규제자는 코드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를 규제한다. 저작권법, 명예 훼손법, 음란물 규제법 등은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후에 제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법이 얼마나 잘 규제하는지,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 효과와는 관계없이 법은 만일 위반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사회 규범 또한 사이버 공간 내의 행위를 규제한다. 뜨개질에 관한 뉴스 그룹에서 민주 정치에 대한 글을 올려 보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방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토론방에서 말을 많이 하고 화제를 독점해 보라. 당신은 대화방 입실 금지 목록에 오를 것이다. 일련의 약정이 행동을 제약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내리는 사후 제재라는 위협을 통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

시장도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를 규제한다. 요금 체계는 온라인 접속을 제약한다. 광고주들이 인기 있는 사이트에 돈을 내므로 그 결과 비인기 포럼은 온라인 서브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시장의 제약과 기회가 기능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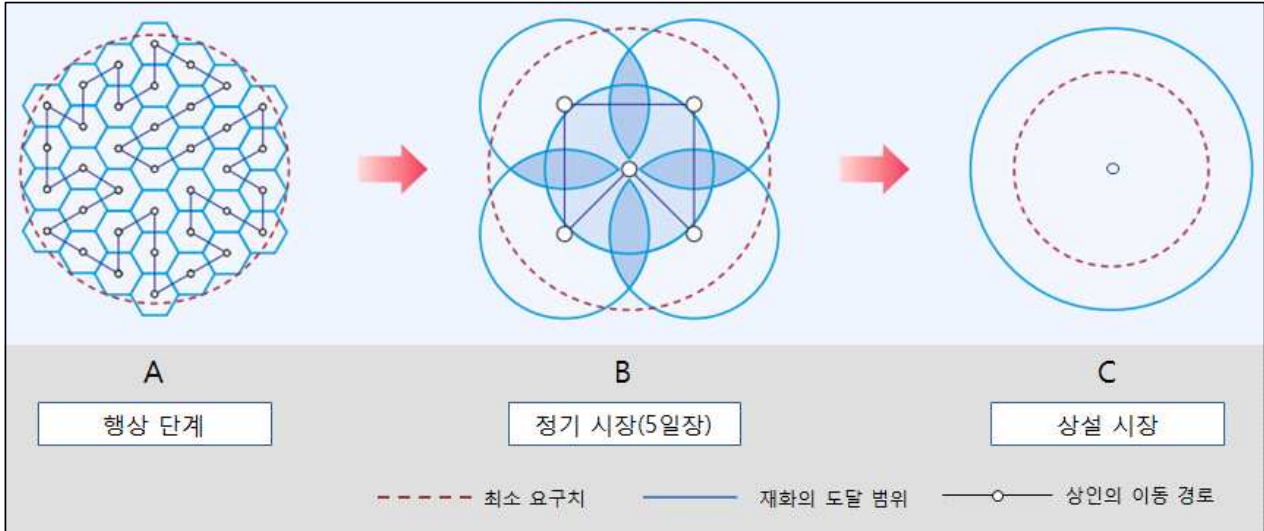
끝으로, 구조가 소리 없이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를 규제한다. 소프트웨어, 구조, 프로토콜 등으로 불리는 코드는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또는 그 세계의 특별한 측면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의한 제약이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행위를 제약한다. 코드는 특정한 가치를 새겨 넣기도 하며, 다른 가치들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지구에서 중력이 누구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인 것처럼 **구조의 제약**은 자율적으로 실행되며 한번 설정되면 누군가 그것을 정지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다]

아래의 도표는 행상 단계에서 정기 시장 그리고 상설 시장으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행상과 정기 시장 단계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좁아서 상인이 이동하며 최소 요구치를 충족한다.

[도표]



* 최소 요구치: 상점을 유지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수요.

-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라]

토포러(torporer)는 매우 긴 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토포러들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이 년 동안 먹지도 깨지도 않은 채 내내 잠만 잔다. 어떤 사람들은 토포러 대신 하이버네이터(hibernator)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토포러건 하이버네이터건 그것을 동면자(冬眠者)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잠이 들고 또 아무 때나 일어난다. 당연히 굴을 파서 땅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몸속에 과도한 지방을 축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곰이 아닌 것이다. “혹시 냉동 인간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잡니다.”

일반적으로 뱀 같은 파충류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체온을 극도로 떨어뜨린 상태로 수 주 이상의 동면에 들어가는 것을 하이버네이션(hibernation)이라고 하고, 곰이나 너구리 같은 온혈 동물들이 축적된 체지방으로 겨울을 넘기는 동면을 토포(torpor)라고 한다. 토포러들의 잠은 많은 양의 피하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이버네이션에 가깝고, 몸을 저온 상태로 만들어 최적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섭씨 삼십 도 정도의 비교적 높은 체온과 활발한 신진대사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토포와 가깝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이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토포러들의 공통점은 긴 잠에서 깨어나면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해지고,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뀌며, 또 굉장히 건강해져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간혹 병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 일이 있으며, 몸의 노폐물과 숙변이 빠져나가고 지방이 분해되어서 날씬해진다는 것이다. 숙변이 왜 제거되는지, 지방이 왜 효과적으로 분해되는지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발 묻지 말아 주길 바란다. 지금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지 않은가. 숙변 제거의 원리가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병원이나 단식원 같은 곳에 가 보길 권한다. 거기서 아마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토포 상태가 한 번 일어나면 그다음엔 일종의 주기가 생긴다. 그래서 토포러들은 다음의 토포 상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중략)

시간이 곧 돈으로 환금되는 21세기에 토포는 재앙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기도 하다. 가스 설비 부품 회사의 사장인 허 씨는 토포 예찬론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동 시장에 걸려 있는 마지막 플랜트 부품 계약이었었는데, 말 그대로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었죠. 엄살이 아니라 따내면 계속 가는 거고 못 따내면 회사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다시피 그때 아이엠에프(IMF)다 뭐다 복잡했잖아요. 처음엔 이삼일 정도 밤을 새고 집에 와서 좀 자고 또 이삼일 정도 야근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잠을 못 자게 되었어요. 무척 바빴어요. 직원들과 관계도 나빠졌고요. 야단치고, 싸우고, 성질도 많이 났죠. 직원들이 제 마음만큼 안 따라주더군요. 야속했어요. 그래도 내 회사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회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크든 작든 가외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인센티브도 정확하게 주고 그랬어요. 남들이 뭐라 하건 저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몰아쳐 대니 힘들 수밖에요. 그래도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안이 엄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잠을 자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상하게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 같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어요. 영국이 기술을 대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합작 회사가 계약을 따냈거나 봐요. 기술력, 가격 둘 다에서 참패였죠. 최악으로 파산하지 않으려면 이것저것 뒤처리도 해야 했는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었죠. 이혼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가 버렸으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극단적인 심정은 아니었는데 온기 없이 텅 빈 집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짐을 챙겼어요. 예전에 낚시하러 다닐 때 사 둔 산장이 있었거든요. 뭐, 거창한 산장은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갔어요. 거미줄이 가득 쳐져 있는 오두막에 촛불을 켜 놓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내 인생에 남아 있는 눈물은 거기서 다 흘렸던니까요. 어찌나 울었는지 울다가 그만 탈진이 되어 버렸어요. 오두막 한쪽에 짚단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백칠십이 일 동안.”

“백칠십이 시간이 아니고요?”

“네. 정확히 백칠십이 일 동안이었죠. 초여름에 들어갔는데 깨어 보니 겨울이 와 있었어요.”

“몸은 어떻던가요?”

“매우 상쾌했어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조금 아귀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당연히 엉망이겠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고 연락도 안 되니.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살아 있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마냥 즐거웠어요.”

“요즘 장안의 돈은 허 사장님이 다 쓸어 모은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뭘요. 그냥 직원들처럼 저랑 겨우 밥 먹고 살죠. 아 참! 얼마 전에 아내와도 다시 합쳤어요. 호주로 날아가서 허름한 모텔에 거주하면서 한 달을 짹짹 벌었다니까요. 하하.”

곰과 뱀이 혹독한 계절을 넘기기 위해 동면에 들어가듯 토포러들도 주로 위기가 닥쳤을 때 토포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토포 상태에서 깨어나면 다시 힘을 얻고 나온다. 나는 토포 상태가 정확히 뭔지 몰랐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무얼 준비하죠? 곰처럼 지방을 축적하나요?”

그러자 그는 피식 웃었다. 일곱 번의 토포 상태를 경험했고, 토포 경력만 육년쯤 되는 베테랑이었다.

“건강 상태가 중요하긴 하지만 곰처럼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꿈을 모아요.”

“꿈?”

“두 번째 토포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고 일어날 때는 못 느끼지만 서너 달씩 계속 잠을 자다 보면 꿈속에서 깨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현실이 오히려 몽롱하게 느껴져요. 꿈의 재료가 없으면 심심해요. 저는 사후 세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계 말이에요. 거기선 행복도 상상력에서 나오고 권력도 상상력에서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무턱대고 들어간 토포에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서 좀 심심했어요.”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상상인데.”

“그게 막상 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막상 긴 꿈을 꾸게 되면 별 게 없어요. ‘꿈을 어떻게 꾸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니 이게 말이 나 되나. 어떻게 살았기에 상상할 게 이리도 없나.’ 하고 꿈속에서 자책을 한다니까요. 하하. 더구나 꿈속에선 모든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삼십년도 몇 분 안에 똑딱이에요. 물론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도 하지만요. 하여간 그래요. 꿈을 꾸기 위해선 꿈의 재료가 필요하죠.”

“어떻게 재료를 모으죠?”

“지난 일기장도 읽어 보고, 앨범 사진도 곰곰이 바라보고, 동창이나 옛날 애인처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찬찬히 생각도 하고 기억도 더듬어 보고, 그리고 요즘엔 책도 많이 읽어요. 되도록 즐거운 상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행복해지죠. 그래야 꿈속에서도 행복하고 깨어나서도 행복하고.”

나는 토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하고 또 잠이 들면 깨어나기를 싫어하니까. 사실 나는 그저 토포의 늪에 한 번쯤 풍덩 빠져 보고 싶다. 회사만 안 잘리고, 월급만 제대로 나오고, 보험금이나 적금 통장에 ‘뽕꾸’만 안 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을 왜 그만 식으로 사냐.’라는 식의 잔소리만 안 듣는다면, 모든 것을 잊고 그저 한 옥 개일쯤 푹 자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토포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에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토포 상태에 빠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